線條 一帶로서 下端緣帶와의 間地는 無紋이다。이같은 臺座로서는 日本 金銅立佛像에서 同一例를 볼 수 있는 바(小林 前揭書 第三號 釋迦如來立像) 蓮紋上에 衣紋端片이 彫刻되어있으며 立像의 圓臺座로 推定된다。 高六㎝(扶餘高校所藏)

(2) 蠟石製圓形蓮座의 約1/3片으로서 蓮臺上은 元來 方形을 이룬것으로서 隅角에는 귀꽂形이 裝飾되어 있다。伏蓮座는 長方形의 單蓮으로서 細線으로서 區劃하였으며 下端은 一段 좁아들어 無紋인데 元來 臺石에 挿入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一九六〇年七月二七日 扶餘舊衙里의 扶蘇山麓 鄕校발寺址에서 洪再善君이 拾得한 것으로서(前號의 如來立像片 出土地點)現高 六㎝ 本稿에 揭載된 圖面은 國立博物館 林泉(其一、二) 朴一薰(其三……3、4、5)兩氏의 作成한 것으로서 이곳에 謝意를 表한다(完)

義城郡大谷寺의 靑石塔

崔 成 鳳

昨年 本誌 第二卷 第六號에서 金銅佛을 紹介할때 言及한 靑石塔을 今夏에 調査하였으므로 紹介하려한다。大谷寺는 現在 一庵(寂熙庵)을 가지며 大雄殿、冥府殿、寮舍、梵鍾樓 등으로 口形의 伽藍配置를 이루고 있으며 塔은 그 中央 庭中에 安置되고 있다。

이 塔은 忠南 牙山神心寺의 靑石塔①과도 같이 塔身및 相輪部를 缺하였고 方形의 屋蓋는 上下蓮花臺石上에 累積되었으며 地臺石만은 花崗石으로 一段을 놓았다。單瓣의 仰覆蓮花를 各各 二十四瓣을 彫刻한 單基壇의 上下石이 中石을 缺하면서 重疊되어 있는點 屋蓋의 手法등 모두 같은 樣式을 이루고 있다。屋蓋石은 十二層까지 남아있으며 實測한 結果 總高一三〇㎝(基壇石으로부터) 下蓮臺石幅八七㎝、上蓮臺石七一㎝、第一層屋蓋石六五㎝、第十層이 三〇㎝이다。그러나 元來 이 塔을 十三層



로 推定해 볼때 現存 第六層이 一邊四五㎝이고 第七層이 四·一五㎝이니 他屋蓋石間의 比率에 對하여 縣隔한 差異를 나타내므로 本來의 第七層 屋蓋石이 遺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바이다。高麗에 流行한 靑石塔系에 속하는 貴重한 新資料로서 旣知의 遺品과 더불어 注目할만하다。

註 ① 本誌第二卷第一號의 鄭明鎬氏發見인 牙山 神心寺의 塔을 參照

「參考」現存 大谷寺의 遺蹟및 發掘된것 (建物은 除外)

○ 遺物

1、靑石塔一、2、八角竿石一、3、石鍾一、4、廢塔材(屋蓋一基 壇石一)

○ 出土品(鐵佛)

1、金銅佛二(이中一은 今夏 發見된 것으로 未發表)

彦陽 大谷里寺址의 調査

鄭 永 鎬

蔚山市에서 彦陽行버스로 一〇㎞ 地點 泗淵里에서 下車 大谷里行 小路로 約六㎞ 步行하면 大谷國民學校이며 다시 峽谷의 溪流를 따라 二㎞쯤 올라가면 彦陽面大谷里盤龜臺인데 俗稱 圃隱臺(註)라고도한다。이곳 언덕